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



[기획인터뷰]

INTERVIEW

최형기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 국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통하여 유닛로드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6개 업체, 200여개의 설비 등이 물류표준화 설비인증을 부여받았다.

각 기업들이 물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설비인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물류설비의 표준화율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지난해에 40%를 기록하였다. 한걸음 나아가, 기표원은 물류설비의 표준화에 대한 확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도 병행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류표준화 분야에서 꼭 필요한 “물류표준설비의 표준화 인증”과 “물류경영 시스템 인증”제도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 신기술인증지원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 물류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표원의 표준기술지원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형기 국장이다. 최 국장은 92년 기술표준원에 공업연구관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물류표준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오고 있다.

Q 먼저 기술표준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물류표준설비 인증 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개발제품의 품질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장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물류표준설비 인증 업무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물류표준설비 인증(LS)이외에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제품임을 인정하는 NEP인증과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GR),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ES) 등이 있습니다.

물류는 한 국가 경제발전의 동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물류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일본이 4.8%, 미국이 7.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9.7%에 달하고 있고, GDP대비 물류비 부담율도 11.9%(국제항공화물 포함시는 1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의 표준과렛트의 보급률도 유럽이 90%에 이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약 60%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3년 주기로 한국과렛트협회에서 발행하는 「'06년도 과렛트생산 및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겨우 약 3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물류설비의 표준

화를 통한 유닛로드시스템의 조기구축으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연말 현재 106업체 190개 설비에 대하여 물류표준화 설비인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설비의 표준화에 대한 확산·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인증제도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실시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한 물류비 저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표준(Standards)이라함은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서 의해 승인되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말하고,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으로 소기의 목적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류와 연결하여 표현한다면 물류표준화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물류기기나 설비 또는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을 기하여 물류흐름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물류설비의 표준에 의한 시스템화를 전제로 단순화(Simplification), 규격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하여 화물이송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물류체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산업 사회에 대응하는 선진 물류기반을 구축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류표준화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당연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우선 물류표준화를 실시함으로써 물류흐름을 개선하고 유통 및 물류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여 물류표준설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표준화율 제고는 물론 물류설비의 자동화 및 공동화로 연결되어 기업 물류비 절감에 의한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앞으로 물류표준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표준화율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6.8%('97), 26.7%('00), 31.7%('03), 39.4%('06)로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대내적으로는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외적으로는 물류분야 국제협력의 미흡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물류표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닛로드시스템을 갖춘 대형화·전문화·고도화된 우수 물류기업을 발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으로써 인증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인증 품목에 대한 농협 등 공공기관의 구입 확대 등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물류표준화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물류표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한·중·일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물류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북아와 동남아 6개국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권 내 환적비용의 절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하였지만 지난 '04년부터 시행해 온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되어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원에서 2004년 7월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현재의 품목별 인증은 물류설비의 표준화 촉진에는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이는 물류설비의 단순한 외형 치수(size)에 대하여 표준패렛(1100mm×1100mm)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효용성이나 물류관리의 효율성 추구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의 물류업계의 현황은 대형화·전문화된 물류·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물류설비가 모듈 및 시스템화로 구축되고 있고 그 사용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어 물류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물류경영시스템」으로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에 대한 평가는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물류작업에 사용되는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전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을 모듈화 하여 단계별로 묶어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인증을 거쳐서 10월 이후 본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고, 건교부 및 해수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의 상호 연계하여 인증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각각의 단위 품목의 표준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물류설비들의 연계성과 호환성을 평가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유닛로드시스템화를 촉진함으로써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 및 공동화 실현을 통한 기업 물류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원에서는 『물류경영시스템』의 범위를

물류서비스 인증까지 확대하여 유통·물류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기술표준원은 금년초 물류표준설비인증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인증대행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른 공정성이나 신뢰성 등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새로이 실시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민간에게 이 업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온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인증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초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평가를 위한 인증업무 대행 및 성능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최종 인증행위는 현행과 같이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합니다

인증평가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인증 및 성능검사업무에 투입 활용할 수있고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물류관련기관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증 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과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려하신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는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증신청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기관에서는 인증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예산 및 조직을 기존의 조직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공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설문실시를 통하여

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중에 시범실시를 거쳐 10월부터 실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도 현재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추이를 보아가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에 민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Q 귀원에서 시행하는 물류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절대적인 참여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물류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근 물류거점의 대형화추세에 따라 물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문 물류(제3자물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연계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하역시설 및 물류장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물류기기 및 설비의 개발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나 사용기업의 활용이 미흡하여 전체적인 물류표준화율의 저조에 의한 물류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류의 비효율성이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물류설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표준화된 장비와 기기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것이 생산자의 표준화 설비 생산의욕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하여 물류업계 전반에 물류표준 장비 및 설비가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물류표준설비 인증과 새로이 시행하게 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받은 기업들도 인증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 등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